

4월 국내건설수주액 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

발주부문별 : 공공 20.3% 감소, 민간 18.8% ↑
공 중 별 : 토목 13.1% 감소, 건축 16.4% ↑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가 조사·발표한 2011년 4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8조 6,490억원으로 집계되어 전년동월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부문별로 공공부문은 토목이 대형 국책사업 부재 등 SOC시설에 대한 공사발주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23.1% 감소하는 등 부진을 지속하였으며, 건축도 공공주택 공급감소로 주거용건축이 국도의 부진을 보인데 기인하여 비주거용건축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13.6% 감소하여 지난 3월의 증가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이에따라 4월 공공부문 국내건설수주액은 2조 2,092억원에 머물러 전년동월대비 20.3% 감소하여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감소하는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민간부문은 토목이 설비투자 확대 호조를 보이던 플랜트·기계설치공사가 거시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 확산으로 위축된 양상을 보였으나, 부전·소사간 복선전철 등

대형 BTL 사업과, 골프장 건설공사 등이 이어진데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5.6% 증가하였고, 건축도 고덕시영재건축 등 수도권외의 재개발·재건축 물량 증가와 함께 부산, 경남, 대전, 수원 등지에서 신규주택 공급이 증가하여 주거용건축이 활기를 보인데다 업무시설, 공장, 상가 등 비주거용건축도 동반 호조를 보인데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2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4월 민간부문 수주액은 6조 4,398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8.8% 증가하여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2조 5,981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1% 감소하였

으며, 건축공사는 민간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6조 51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최근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공공부문 수주액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청사신축이 급년중 차공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하반기 이후에나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공사도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경기 회복세가 일부 감지되고 있으나 주택거래 위축, PF 부실 문제, 가계부채 급증 등 여러 가지 악재가 혼재하고 있어 단기내 건설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공제조합, 중장기 발전방안 『2020 경영전략』 추진키로 해

2020년 종합 건설금융기관으로 도약할 것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지난 14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중장기 발전방안인 「2020 경영전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2020 경영전략」은 향후 10년간 조합을 둘러싼 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최고의 건설보증기관으로서 경쟁력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방안으로서, “건설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최고의 종합건설금융기관”이라는 새로운 비전하에 2020년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스를 제공하는 종합 건설금융기관으로 도약을 목표수립하고 이를 위한 <미래성장>, <고객감동>, <조직역량>의 3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개 전략테마, 12개 전략과제”를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4대 전략테마는 조합 본업인 보증·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 안정적 수익원 창출과 조합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 그리고 무한경쟁체제에서 지속적

인 경쟁력과 대외 공신력 확보를 위한 「BEST경영체제 구축」 및 「조합 브랜드 강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다각화는 향후 실행가능한 신규진출사업 풀(pool)을 선별하고 관계법령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 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2020 경영전략」 추진으로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분야를 보증을 비롯한 제반 금융분야로 확대하고, 계약적으로는 총보증실적 65조 원, 고객만족도 95%, 보증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사랑의 집 고치기(해비타트 운동) 참여

독거노인 거주 낡은 가옥 수리 봉사

한국시설안전공단 김경수 이사장과 임직원 12명은 지난 14일 '사랑의 집 고치기' 운동에 참여했다. 공단임직원은 파주 연풍리의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30년 이상된 낡은 가옥을 방문하여, 도배와 장판 및 보일러 교체, 급수배관 점검 등 주택 전체에 대한 수리와 점검을 실시했다.

공단은 집 수리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해당 독거노인과 파주시청 복

지당에 사랑의 쌀을 기증하기도 했다. 이번 사랑의 집 고치기 운동에 참가한 임직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봉사에 임해 눈길을 끌었다.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일환으로 매년 해비타트 운동에 참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도시는 어디?

2011년 도시대상 공모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주최하고,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중앙일보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1년 도시대상이 전국 230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6월 20일부터 공모에 들어간다.

도시대상은 기초지자체가 지난 1년간 도시 공간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2000년 지속가능한 도시 대상으로 처음 시작하여 올해 제12

회에 이르고 있으며, 문화·환경·교육 안전 등 도시의 전 분야에 대한 평가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평가로 인정받고 있다.

금년에는 UNEP(유엔환경계획), OECD 및 행정안전부의 지역녹색경쟁력지표 등 다양한 국내·외 도시평가 지표를 반영하고, 도시정책의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문제인 고령친화·다문화 부문과 도시기본계획 부문을 추가하는 등 평가지표를 선진화하고, 평가부문도 다양화하였다.

특히, 도시대상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대상 평가 결과를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등 지자체 국비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도시대상의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모든 지자체가 공유하고, 지자체의 응모편의를 돕기 위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6월 15일 성과토론회 및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작년 도시대상 수상도시(군산시, 광주 북구, 서울 송파구)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올 해 달라진 평가내용 및 응모요령·확대된 인센티브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18종의 부동산 정보를 한 눈에

스마트국토, 부동산 행정정보 법·행정·산업간 발전방향 모색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18종의 국가 부동산 정보가 하나로 통합된다.

부동산 정보가 통합되면 건축 인허가, 토지 지목변경, 토지 분할 등의 일괄민원처리가 가능하고, 중복업무가 해소되며, 부동산관련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돼 수조원대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13일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했다.

한국비교사법학회가 주관하고

국토부와 대한지적공사가 후원하는 이 토론회에는 향후 부동산 종합공부 법제화를 추진할 국회의원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각계 전문가들 참석하였다.

토론회의 주요 발표주제는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의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 법·제도 개선방향이며, 전문 패널의 발표요지는 ▲ 부동산정보 정책서비스 방향 ▲ 자치단체 관점에서의 사업의 추진의의와 방향성 ▲ 전자정부 관점에서의 사업 일관성과 고려사항 ▲ ICT 기업 등 민간에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 등이다.

18종의 부동산 정보는 단계적으로 통합된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토지대장·임야대장·대지권등록부·공유지연명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건축물대장 등 11종이 하나로 통합된다.

이어 2013년까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개발주택가격확인서·공동주택가격확인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 합쳐지고, 2014년부터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등기부등본 등의 통합이 진행된다.

부동산 정보는 그동안 국토부, 대법원 등 2개 부처 5개 법령으로 분산 관리돼 구비서류 중복 제출, 중복업무, 민간 공공정보산업 발전 저해 등의 문제점을 야기해왔다.

연간 1억100만건의 부동산 관련

서류 제출과 1,000억원 이상 납부비용이 낭비되고, 행정시스템 분리로 중복업무 579만건, 중복정보처리건수 8,826만건에 이른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사



KOSCA(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박덕흡)는 지난 15일자로 중앙회 상임이사

를 다음과 같이 선임했다.
◇상임이사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기획관리본부장 선임: 최 재 순 (2011. 6. 15~2014. 6. 14.)

리츠 영업인가 심사 강화 및 상시 감독체계 구축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 및 PF사업 침체 등으로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9년 6월 27일에 불과했던 자기관리리츠는 현재 18개이며, 영업인가 심사 중인 자기관리리츠도 현재 15개에 달한다.

그간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에서는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최저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리츠 등에 대하여 불인가 또는 인가 취소처분을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왔다.

투자자 모집 및 상장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리츠의 영업인가 신청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운영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실한 운영 등으로 일부 리츠의 상장폐지가 진행되는 등 리츠의 신뢰성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리츠에 대한 인가심사 및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리츠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지난 15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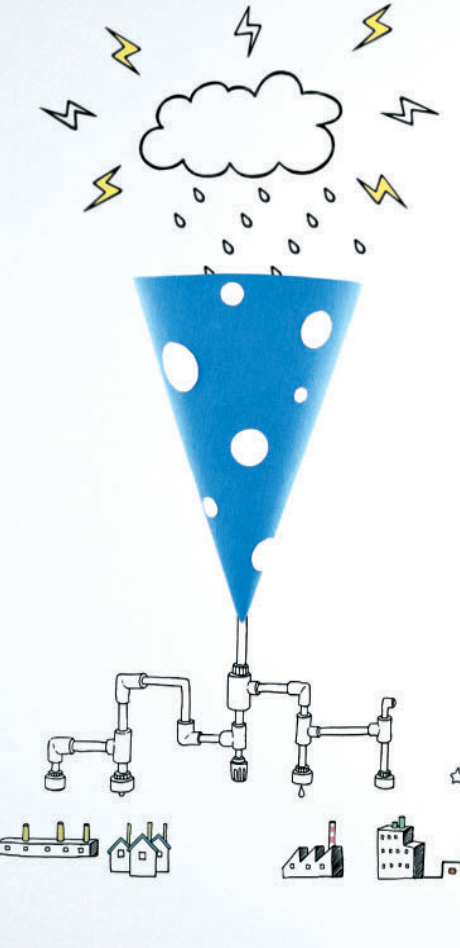
앞으로 자기관리 리츠의 영업인가 심사시, 인허가 부서 협의 및 현장실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등에 대해 관련 지자체 및 인허가부서 의견조치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인가한다.

아울러, 영업인가 후에는 인가시의 초기사업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며, 감정평가의 의무화 등을 통해서도 토지매입가를 부풀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물이 만드는 똑똑한 세상





빗물을 모아 공장을 움직이고 물로 도시전체를 밝힙니다.
 삶의 터전인 논밭도 일어서 척척 가꿔주고,
 기름없어도 자동차를 뽕뽕 달리게 하는 똑똑한 물!
 물은 깨끗한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입니다.

물로 더 행복한 세상, K-water가 만들어 갑니다.

